목포시, 3대 미래전략산업 육성 탄력

친환경선박·해상풍력·수산식품 등 81건 8499억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목포의 미래 먹거리인 신재생 에너지, 수산식품, 관광 등 3대 미래전략산업이 탄력을 받았다.

목포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목포 관련 예산이 81건 8499억원 반영돼 3대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결정된 중앙부처(안) 6374억원보다 2125억원이 증액됐다.

시는 그동안 김종식 시장 등이 정부 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남도·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친환경선박 관련 산업과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한국섬진흥원 등이다.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은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21억5000만원),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73억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개발(24억원) 등 관련 사업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돼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비(15억원)도 정부안에 반영됐다.

총사업비 1089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대양일반산업단지에 수산식품 가공 및 유통, 수출·창업 지원, 연구개발(R&D) 등을 집적하는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안에 공사비 300억원이 포함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10~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의 미래 먹거리인 3대 전략산업 등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면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협력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해남미소' 추석선물 통 큰 할인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 최대 40% 할인
구매왕·응원왕·행운왕 등 경품 이벤트

해남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우수 농수축산물 통 큰 할인행사와 푸짐한 경품 이벤트를 한다.

해남미소는 땅끝해남에서 생산, 엄선된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농가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로 추석 선물용 특별판매 행사를 한다.

설과 추석 등 명절에만 선보이는 명품 꾸러미 선물세트는 해남미소 히트 상품으로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농수산물로 알차게 구성했다.

꾸러미 선물세트는 쌀, 잡곡, 김, 멸치, 참기름, 꿀, 건표고, 미역, 다시마, 소금, 조청, 쨈, 차 등으로 구성했다.

1호는 8개 품목 3만원, 2호는 12개 품목 5만원, 3호 14개 품목 10만원에 판매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청정 쌀과 잡곡 11종, 축산물 8종, 수산물 29종, 전통식품 11종, 웰빙과일채소 13종, 건강식품 23종 등 총 100여개 명절 선물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소비촉진 할인 쿠폰을 지원받아 최고 40%까지 통 큰 할인을 한다.

할인 쿠폰은 1차 농수축산물과 인증 가공품에만 1인 1회 최고 2만원까지 적용된다.

구매 고객을 위한 푸짐한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14일까지 진행되는 행사기간 해남미소를 통해 구입한 고객 중 구매왕 50명을 선발해 3만원에서 20만원권 상당의 해남미소 상품권(포인트)을 증정한다.

구매 후기를 작성한 응원왕 20명에게 쌀 10kg, 무작위 추첨 행운왕 30명에게 해남 진품고구마 3kg을 제공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건강한 해남의 자연을 먹고 자란 청정해남 농수특산물로 고마운 분들께 마음을 전하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천연기념물 진도개를 식용으로?…군 "사실 아니다"

동물단체 민원 제기 농장 확인
내달까지 2000여곳 실태 조사

어린이들이 진도개 새끼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의 식용개 논란과 관련,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일부 동물단체에서 문제 제기한 진도개의 식용개 논란은 진도군 공무원이 현지 확인 결과 농장주가 반려견으로 기르던 개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단체가 동물 학대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농장을 2차례 방문한 결과 천연기념물 등록견으로 보호되고 있는 진도개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개가 혈통 보존 가치가 없으면 천연기념물에서 지정 취소되고 식용의 목적으로 희생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소문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군은 지속해서 진도개 등 반려동물 농장 사육실태를 일제 조사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농장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진도개 사육환경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10월 말까지 2000여개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 등록 ▲동물관리상태 ▲사육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1967년부터 진도개보호지구로 지정된 진도군은 진도개 혈통 보존을 위해 진도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군은 진도개의 혈통 보존을 위해 ▲영양제와 백신 등 방역비 ▲견사·방사장 건립비 등을 매년 1억여 원가량 지원하고 있다.

진도군은 진도개 표준 체형에 의거 19가지 심사항목과 혈통 등을 기준으로 총 6956두의 진도개를 천연기념물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조선 무신' 정호남 고문서 문화재 지정 고시

영광 정호남 관련 고문서가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347호로 지정 고시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정호남(1736~1812)은 조선 후기 무신으로 영조 45년(1769) 무과에 급제해 관직생활을 시작해 정조 때 수원 화성 축조에 참여했고 장용영 소속 군관으로 활약 후에 종3품 안흥첨사를 역임했다.

이번에 지정된 영광 정호남 관련 고문서는 정호남이 무과에 급제해 수여 받은 홍패를 포함해 그가 관직생활 동안 받았던 교령류 등 모두 41점이다.

고문서에서는 무신 정호남의 관직 생활 과정과 관원의 임명 및 지역 인물의 정계 진출, 문중의 위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는 관찬 기록과도 일치하는 다수의 실물자료로 역사·학술적 가치를 높이 인정받았다.

이번 지정된 문화재를 통해 군은 모두 72건의 지정문화재(국가 16건, 전남도 41건, 군 향토문화유산 15건)를 보유하게 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정된 문화유산을 관리·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정되지 않아 소외된 지역 내 문화유산을 꾸준히 발굴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박우량(가운데) 신안군수 등 관계자들이 지난 31일 비금도에서 시금치·해당화 가공사업장 '레드비치 Cafe' 개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시금치·해당화 가공 사업화 박차

사업장·체험카페 문 열어

신안군이 지역의 특산품인 시금치와 해당화 가공을 통한 사업화에 적극 나섰다.

신안군은 지난 31일 비금면에서 '농업인 소규모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시금치와 해당화 가공사업장 '레드비치Cafe'를 오픈하고, 결과평가회를 가졌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사업을 지원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가공 상품 개발과 농산물 가공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한다.

이 날 개소한 '레드비치Cafe'는 비금면 용소리 레드비치 공원 부근에 마련됐다.

이 곳은 시금치와 해당화 가공사업장이면서 체험카페로 시금치 칼국수와 해당화를 베이스로 한 음료 등 비금도만의 특색을 담은 차별화된 메뉴를 선보인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비금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시금치와 해당화를 가공한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 등으로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